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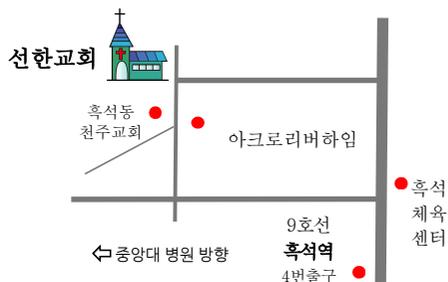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1부 주일 오전	9:30		
2부 주일 오전	11:00	믿음의 씨앗 (유아부)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3부(청년) 오후	1:00	선한 꿈 (유초등부)	오전 11:00 요셉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파워틴 (청소년부)	오전 11:00 바울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오전 11:00 루디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년부	오전 11:00 마리아회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비전위십	오전 11:00 드보라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오전 11:00 에스더회 오후 1:0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오전 11:00 안나회 오후 2:00

섬기는 분들

사역자	담임목사 임춘배	국내선교사	오인숙, 한배선
	교육목사 정용준	협력교회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협동목사 홍진표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교육전도사 윤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효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퇴장로	고상돈, 김대희 박희태, 유신웅 조윤익	해외협력선교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장로	조계승 (집사장) 박영근, 윤호중 편도선, 이태수	관리장로	손석규 (1호) 필리핀 Good Church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36,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엡 5:10)
Carefully determine what pleases the Lord

실천사항 영의 일을 생각하기 기쁨으로 섬기기 복음 전하기

삶의 방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 13:10)

기독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춘배

**주일
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3부 오후 1:00

인도: 임춘배 목사
인도: 정용준 목사

1, 2부		3부(청년부)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91장 (통일찬송가 91장)	
교 독 문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찬 양 과 경 배	348장 (통일찬송가 388장)	
기 도	이태수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성 경 봉 독	요한계시록 13장 1~18절	삼하 16:5~12
설 교	두번째 환상: 용과 두 짐승 (임춘배 목사)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인생 매뉴얼 (정용준 목사)
헌 금	헌금송 : 정주영 청년	다 함께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지어져 가네
축 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커피브레이크 모임

**주일
오후**

오후 3:30

사회: 임춘배 목사

찬 양	Joy And 찬양팀
기 도	다 함께
성 경 봉 독	창세기 9장 1~17절
설 교	노아와 맺은 언약 (임춘배 목사)
찬 양	521장(통일찬송가 253장)
광 고 및 축 도	임춘배 목사

**수요
예배**

오후 7:30

인도: 임춘배 목사

대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시편 129:1~8)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 안 내**
 -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 2) 교회현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3) 오늘 점심 봉사는 청소년부/청년부입니다.
 - 4) 주차 안내 ①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② 흑석종합사회복지관 무료 주차 가능.
- 헌 신 예 배** 22일(주일) 오후 예배는 루디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 강사: 길미란 사모(주님의 은혜교회)
- 국 내 선 교**
 1. 오늘부터 2025년 국내선교 준비 모임이 시작됩니다.
국내선교 참가 신청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 6월 15일(주일)~7월 13일(주일) 매 주일 오후 예배 후
2) 장소: 지하 2층 청년부실
 2. 2025년 국내선교 개요
1) 날짜: 7월 21일(월)~23일(수)
2) 장소: 원주 주안예교회(이정필 목사)
3) 내용: 노방전도, 찬양집회, 청소년 전도 모임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비진리의 미혹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도록.

찬송 : '내가 예수 믿고서' 421장
본문 : 단 10:10~14

내 삶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참 기뻐”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그런 극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살펴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단 10:2)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하게 될 고통의 시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3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다니엘이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은 그 나라의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할 수 없는 법이 정해졌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왕의 조서가 나왔음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 6:10)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그 조서에 명시된 기간에만 잠깐 기도를 쉬든지 아니면 속으로 기도했을 텐데 다니엘은 왕의 법을 무서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한 나라의 총리로서 해야 할 일이 많고 바빴지만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포로 생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늘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대화는 많이 나눌수록 상대방을 더 신뢰하게 하고 친밀감을 느끼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를 더 자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목

두 번째 환상: 용과 짐승 (계 13:1~18)

서론 사도 요한은 세 번째 재앙 시리즈 전에 몇 가지 막간 장면들을 봅니다.

1. 막간 장면1: 악의 삼인조

(1)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 사이의 영적 전쟁: (악의 3인조)

①붉은 용(12장) ②바다에서 나온 짐승(13:1-10) ③땅에서 올라온 짐승(13:11-18)

(2) 바다에서 나온 짐승(1-10절): ①뿔10, 머리7, 10왕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 ②표범과 비슷, 발은 곰의 발, 입은 사자의 입. 용이 큰 권세 줌 ③머리하나 죽게 되었다 나온 모습 보고 온 땅이 따름 ④신성모독 말하는 입 받고 42달 일할 권세 받음 ⑤하나님 향하여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김 ⑥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함 ⑦“사로 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10절)

본론

(3) 땅에서 올라온 짐승(11-18절): ①어린이와 같이 2뿔있고 용처럼 말함

②첫 짐승의 모든 권세 행하고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함 ③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큰 이적 행함 ④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하여 첫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함 ⑤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죽임 ⑥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 짐승의 수는 666

2. 교훈

(1)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인가?

(2)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인가?

(3) 이들이 행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결론

세상 권세자의 압제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속에도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이태수 장로	윤호중 장로
2부 예배 헌금	박대수 집사	윤국로 집사
오후 예배 기도		서진화 집사
주 방 봉 사	청소년부/청년부	드보라회/에스더회

매일 Q.T.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느 의로우신 재판장	날짜 : 6월 15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본문	시편 75:1~10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름이 가까우니 사람들이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합니다. 주님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바르게 심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진노의 잔을 악인에게 쏟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상질문 1	바르게 심판하실 하나님 75:1~3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내 곁에 늘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인식하며 살고 있나요?		
목상질문 2	재판장이신 하나님 75:4~10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만한 악인들은 무엇을 마시게 되나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느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한절목상	시편 75편 1절 믿음의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감사를 고백합니다. 위기를 허락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강력한 대적의 공격 앞에서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며 감사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공개적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극도로 암울한 현실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가 할 수 있는 귀중한 신앙 고백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사람들은 저를 외면해도, 저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소서. 불의함이 득세하는 세상에 놀라지 않고, 의로우신 뜻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고 순복함으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소서.		

개인 성경 공부		악인의 행동과 하나님의 섭리
찬양과 기도	죄 짐 맡은 우리 구주(찬송가 369장), 악할 때 강함 되시네	
목상 나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을 때 악인이 행동하는 모순된 현실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빛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찬 425장). 이 찬송시를 쓴 A. A. 폴러드 여사는 당뇨와 신경 계통의 병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를 서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면 모든 길이 행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왜 자신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는지, 과연 자신의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지 원망스러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어느 할머니가 “주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폴러드 여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려 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그릇을 만든다는 본문(렘 18:3~4)을 읽고 감동받아 밤을 새워 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인생 여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 한기홍,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두란노)	
말씀나누기	시편 73:1~14	
목상포인트	73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신뢰하게 하며, 일시적인 현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공의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시에는 신정론(神正論)의 핵심을 다루는 중요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직면하는 실존적인 질문인 “왜 의인에게 고난이 찾아오며 악인은 행동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불행과 비극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만이 영원한 복과 벌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아삽의 고뇌와 깨달음의 과정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이 시는 신앙적 혼란과 갈등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의로운 자들을 인도하신다는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관찰과목상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던 시편 기자는 왜 실족할 뻔 했나요? (2~9, 12절)	
적용하기	마음이 정결한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행동한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고, 각자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불의하게 재물을 축적하며, 교만과 횡포를 부리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구원’이라는 우주적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악인이 행동한 것을 볼 때 낙심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소서. 마침내 의인의 손을 들어 주실 심판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순전한 마음과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사명	날짜 : 6월 20일 금요일
---------	-----------------------	--------------------

찬양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본문	시편 78:1~8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라고 합니다. 이는 조상들이 전해 준,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과 그분이 행하신 기이한 사적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자손 대대로 알려야 함은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명을 지켜 패역한 조상들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목상질문 1	영적 교훈의 계승 78:1~4 시편 기자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전하려 했나요? 다음 세대가 믿음에 굳건히 서도록 내가 그들에게 힘써 전할 것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하나님의 명령 78:5~8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인생의 선배요 신앙의 선배인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소망을 품고 기도하나요?	
한절묵상	시편 78편 1, 7절 성도는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 율법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규범을 제시하며,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려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 사랑의 법인 율법을 후대에 전하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성도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기성 세대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을 바로 살고, 믿음으로 삶을 가득 채워 다음 세대에 게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하게 하소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게 하소서. 소망의 깃발을 들고 믿음으로 뒤따르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	

매일 Q.T.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심판자	날짜 : 6월 17일 화요일
---------	-------------------	--------------------

찬양	찬송가 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	
본문	시편 76:1~12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전쟁을 없애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유다(이스라엘)에 알려지셨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병거와 말도 잠들고, 그분이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려고 일어나시면 땅도 잠잠해집니다. 세상 왕들에게 두려움이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은 마땅히 경외해야 합니다.	
목상질문 1	용사이신 하나님 76:1~6 하나님이 꾸짖으시니 이스라엘의 원수는 어떻게 되었나요? 나는 언제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명하게 체험했나요?	
목상질문 2	비천한 자들의 하나님 76:7~12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심판자로 일어나시나요? 나는 언제 심판자 하나님을 선명하게 체험했나요?	
한절묵상	시편 76편 8~9절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단순히 유약한 자가 아닙니다. 환난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며 인내하는 자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 땅의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을 행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왕들의 악행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늘의 심판자가 임하시면 땅의 왕들은 죽은 자처럼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온유한 자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유한 자는 전능자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더 알아 가게 하소서. 연약하고 억눌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약한 자들을 꾸짖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게 하소서.	

찬양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본문	시편 77:1~9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환난 날에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심령이 상한 자는 주님께 괴로움을 호소하며, 지난날 자신이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합니다. 그는 주님이 자신을 영원히 버리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며, 인자와 약속도 영구히 폐하셨을까 봐 염려하며 기도합니다.	
목상질문 1	밤새 부르짖어 간구함 77:1~3 시편 기자는 환난 날에 무엇을 했나요? 내가 불안과 근심을 떨쳐 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모든 확신이 흔들림 77:4~9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시편 기자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왔나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 나는 어떻게 하나요?	
한절묵상	시편 77편 1절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밤에도 손을 거두지 않고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당장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할 때 한 줄기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기도는 곧 응답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가 저를 켜켜이 짓눌러도 믿음의 손을 힘껏 맞잡고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베푸실 은혜와 공활을 의심하지 않고, 저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찬양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본문	시편 77:10~20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고 읊조립니다. 주님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속량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며, 주님의 백성을 양 떼같이 인도하십니다.	
목상질문 1	자신의 잘못을 깨달음 77:10~15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나요? 내가 자주 기억하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77:16~20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양 떼'로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요?	
한절묵상	시편 77편 11절 성도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입으로 되새김질하듯 반복적으로 생각하며 다짐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옛적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며 묵상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바를 기억하는 사람은 현재 하나님의 일하심도 기대하게 됩니다. 성도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현재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암담한 상황이 속히 변하길 구하기보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믿음으로 새롭게 되길 소원합니다. 불만과 불신이 쌓일 때 삶의 걸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도 선하신 손을 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이 따르게 하소서.	